

종 합 토 론

사회 : 김 영국(서울대 정치학)

토론 : 김 성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서 극성(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장)

정 경희(한국일보 논설위원)

정 흥진(전 남북대화사무국 위원)

이 청수(KBS 보도본부 부부장)

강 우철(이화여대 역사교육학)

김 세원(서울대 국제경제학)

김 경동(서울대 사회학)

정 철수(경북대 사회학)

팽 원순(한양대 신문방송학)

사회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이루어진 「민족이 산 : 현실과 과제」에 관한 심포지움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종합토론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소요된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시간이 10여 시간이나 지났고 여섯 개 주제에 대한 진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는 토론자 및 발표자를 포함해서 30여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토론을 함에 있어서 우선 각 주제별로 그 주제의 내용과 토론을 요약해서 발표를 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토론의 형식을 따라서 제 1주제에 대한 요약을 이화여대 강우철 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우철

간단히 제 1주제, 「민족이 산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대의 이광규박사가 해 주셨는데 주로 역사적인 고찰을 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민족이 산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일제시대와 8·15 해방 그리고 6·25 동란, 1·4 후퇴를 전후한 얘기를 주로 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김경동교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실 때 민족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민족이 산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말씀해 주신 이광규선생님은 한국의 가족주의가 민족이 산을 얼마나 빼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느냐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멘트를 해 주신 김광억 교수는 국내에 있어서의 이산가족만을 문제삼지 말고 지금 현재 중공에 있는, 그리고 만주에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의 문제—이 분은 중공문제에 상당한 질문이신데—에도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학을 하시는 윤종주선생님께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일천만 이산가족 중에 대체적으로 월남한 사람의 7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60%가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많아서 60%이며, 특히 1·4 후퇴 당시에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과에서는 방법론의 문제가 어려우며, 데이터의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고 보전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사적인 관찰을 하신 신용하선생님께서는 이 이산가족이라는 문제에서, 일제하 36년 동안에 일본에 끌려가고 군인으로 끌려가고 했던 사람보다도,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3년 동안의 전쟁이 몇십 배에 달하는 희생자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적에 평화통일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나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써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맹이 있는 이런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두 젊은 학생이 유익하고, 재미있고, 신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

나는 “왜 이제야 하느냐?”, 하나는 “이제해서, 무엇에 쓰겠다고 하느냐?”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매우 좋았었습니다. 답변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월남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의 다 만난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못 만난 몇 사람을 위해서 만나게 해 줄 기회를 만든 것이 의외로 이렇게 못 만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 놀랐다고 하는 사실, 또 이제 새삼스럽게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우리의 방송매체의 발달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며, 옛날같은 네트워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송기술도 있지마는 하드웨어의 발달이라든가 하는 것에 힘입은 바 크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 이산가족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였으며, 그리고 이것은 학문적으로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진지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그리면 이어서 제 2주제에 관한 보고를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김세원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세원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여느 학술회의와는 달리 이번 학술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쏠리고 결국 이산민족의 재결합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열면 토론이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회를 보았던 「민족이 산의 국제적 맥락과 한국의 대외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본 민족이 산의 역사적 배경 두 가지가 지적되었읍니다. 하나는 외세에 의한 식민화로 주로 20세기 들어와서 외세에 의한 침략 때문에 결국 민족이 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첫번째 주제와는 약간 견해가 다른데 나중에 토론자에 의해서 민족이 산의 역사가 그렇게 짧느냐, 민족이 산의 역사는 임진왜란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배경을 들 수 있는 것이 소위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소산물이 바로 민족이 산을 가져왔다. 특히 6·25로 인한 민족이

산의 문제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발표요지의 내용은 그렇다면—본 회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어떻게 우리가 민족이 산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재결합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그래서 흥미있는 여러 가지 접근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주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토론참가자 세 분 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있는 보충설명들이 있었읍니다.

발표자 이기택교수의 몇 가지 제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토론하시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대부분 토론자께서 어제 참석을 안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첫째 북한을 포함하는 공산권 접근에 관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접근을 포함하는 정치적 접근, 경제적 접근, 그리고 문화적 접근. 그래서 저도 문제로 나중에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정치군사적 접근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문화적 정치적 접근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산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나중에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외교적 대응으로서 발표자는 민족복귀운동, 민족의 뿌리를 찾고 흩어진 민족을 재결합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흥미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내용을 쭉 열거하겠습니다. 첫째는 방송정책의 강화, 그래서 KBS 캠페인도 있었읍니다마는 보다 효율적 운영을 하자. 두번째 방법은 공산권 이산가족의 모국방문을 추진하자. 셋째는 교민청 혹은 민족교류청을 수립해서 민족재결합을 위한 하나의 모체, 하나의 근거를 형성하자는 제안이었고, 넷째는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동포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수입하자, 특히 남만주같은 데에서는 거기서 교포가 생산하는 상품을 한국에서 사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열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그 다음 다섯번째, 국내특파원의 현지파견, 물론 북한은 곤란하겠지요. 북한은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전 혹은 사후 공산권내 교민들로 하여금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자는 제안, 그 다음에 사할린, 중공 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라디오 등 우리나라 교포들이 원하는 그

러한 상품을 우리가 송부하자는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여기서 지적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토론자 한 분이 추가했습니다—UN 기구를 통한 민족재결합운동을 추진하자. 정치적인 차원을 떠나서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자. 이런 식의 발표요지가 되겠고 토론파정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했습니다. 별로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보충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점 하나는 민족이주와 민족이산을 구분하고, 너무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만 민족이산을 볼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주해 간 그런 보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간 경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민족이산을 우리가 보아야지 단순히 비자발적으로 간 경우만 보지 말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이산 하면 벌써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가고 싶어서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간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갔다는 점에서, 보다 이산민족을 부정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학술회의를 열게 된 취지 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지 민족이주문제는 보다 다른 주제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토론자에 의해서 제기된 흥미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민족이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지역과 기타 공산권내의 교포와의 재결합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공산권내 교포와의 재결합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결국 문제는 북한에 있는 민족과 어떻게 재결합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민족재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히 앞질리간 견해였습니다. 세번째는 이산가족과 민족이산의 차이를 두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이라는 자체는 결국 6·25에 의한 소산물이었고 그 외의 민족이산 자체는 이주까지를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히 흥미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과 민족이산을 구분하고 이산가족문제는 보다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UN 기구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재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이산은 우리가 어떤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토론자께서 세 가지 형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유태형 모

형, 두번째는 중국형, 세번째는 서구형, 토론자는 유태형이 바람직하며, 발표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민족복귀운동과 관련해서 유대형의 민족재복귀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정신을 살리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요지와 토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자나 발표자가 다같이 동의하는 귀결은, 결국 민족통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다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 목적은 민족재복귀 민족통합에 관한 캠페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문적 접근을 통한 조직적인 시도를 추진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북한의 문제는 다음 3주제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한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어디까지나 정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한간에 합의를 볼 수 없다면 결국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고, 특히 민족재결합이라는 것은 정치성을 떠나서 비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시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그 자체는 결국은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은 이 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인 타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하기 어려운 이러한 딜레마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3주제에서도 다시 다루어질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제 2주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맥락에서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더 압축되는 것은 이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인 차원 뿐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와도 관련지어서 논의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치해 있는 사회학적인 제요인과도 결부시키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3주제와 제 4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의를 예의 주

시해 오신 김경동교수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 경동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제가 구상을 할 때 좀 생각을 했으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발표한 문제제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을 생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부터 한번 보자 했습니다. 역사를 본 다음에는 국제적인 폭넓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자.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민족이산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이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심각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아주 즉각적인 맥락에서 남북관계 이것을 생각하자, 그리고나서는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이산가족과 민족이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국내에서 어떤 사회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식의 생각이 저희들이 짠 프로그램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제에 직접 참여하시는 않았으니다마는 마침 간여하신 분들께서 사양을 하셔서 제가 그냥 대신 간단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국제정치학을 또는 정치학을 하신 분들이고 또 남북한 관계에 대해 오랜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인 쪽의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발표자이신 안병영교수는 정치학을 하면서도 아주 폭넓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남북한의 이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남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북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왜 이산현상이 남한에서 그렇게 절실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큰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늘 뒤쳐지게만 내버려 두느냐 하는데 대한 해명을 우리들에게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남북간에 있어서의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물론 분단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전쟁, 이것이 주가 되는데 이때 흘어진 사람들이 남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월남가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월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쪽으로 온 분들하고 북쪽으로 간 분들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두 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두 사회가 또 서로一体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질 가능성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이런 혼명을 안교수께서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그러나 상기하는 뜻에서 예를 들면—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거기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고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중래 누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숙청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견디지 못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남쪽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현상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분들은 주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에 상당히 몰두했던 일부층의 사람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납북당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북쪽에서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그쪽에서 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남았다. 이렇게도 보아지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는 이산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처럼 월남가족도 북쪽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은 고충이나, 그분들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적대계층이라는 쟁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 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구실을 했고 사회에 기여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세세한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들면서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북분단에 따른 이산의 결과, 북한은 계층적으로나 성분상으로 특수한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되므로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분자들, 여러 요소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정말 조개진 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이에 비해서 남한은 월남동포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지마는 그 성격도 다양한데다가 남한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갖가지 요소의 집단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을 때 민족적 성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이상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면 이와 같은 이산현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따져 볼 때는 아주 극도로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도 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주요한 까닭은 물론 우리 쪽에 있기 보다는 북한의 이념과 체계와 그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집단 혹은 엘리트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돌리기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얘기할 때 언제나 놓치지 않고 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인 남북의 통일, 그것도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평화로운 민족의 재결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족의 문화적 통합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바탕을 구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혈통이라고 하는 것, 그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정치성을 되도록 배제하고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했을 때, 바로 가족들의 이산, 이 문제부터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도 되고 또 우리가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토론자들이나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대충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면서도 평소에 그런 식으로 체계화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를 떠나서 우리 남한으로 들어와서 민족이 산이라 하는 것으로 특히 그것을 좁혀서 거시적인 테서부터 미시적인 것으로 넓혀왔을 때에 이산가족을 찾자고 하는 운동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마침 사회학하신 분들이어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주 놀랍고 새로운 깨달

음을 얻은 것은 발표자이신 연세대학교의 전병재교수께서 이 산가족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한 서너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도 한쪽의 촛점을 맞추어서 상당히 깊이 다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는 어째서 가족이 이산되었다고 하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이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이처럼 크나 하는 문제를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른바 가족주의라고 우리가 늘 표현을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합나다마는, 혈통을 중요시하고 친족적인 유대를 매우 강조하는 이와 같은 가족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지향이기도 하고, 의식구조이기도 하며, 혹은 사회구조적인 특성이기도 한 이런 아주 복잡한 어떤 현상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전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데는 종래에 우리가 가족주의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근대화를 한다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는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꽤 자주 들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새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주의와 대비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주로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서양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전교수께서 고전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자(梁子)와 묵자(墨子)의 대비적인 개인주의와 보편적인 박애주의라고 할까, 겸애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하나의 이론으로서 맹자(孟子)의 입장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들의 생각도 대개 공통한 것으로 사회하시는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조금 해석을 붙인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회현상에는, 혹은 인간현상에는, 혹은 우주현상에는—음양론적인 그러한 동양사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주역(周易)이나 역경(易經)에 나오는 역(易)의 사상에서 볼 때—대비적이고 갈등적인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이 둘이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 우주가 생성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있는 것인데, 이 상극적인 것처럼 보이

는 것을 서양의 이원론적으로 보아버리면 둘이 완전히 다르면서 극단적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사상 속에서도 이것을 조화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변증법적인 논리에서 나타납니다. 둘이 서로 양극적이면서도, 이것이 서로에 모순되는 것이면서도 새로운 종합을 이루었을 때, 여기에 화학작용 같이 두 물체가 합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원리를 변증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양의 중국사상에는 이미 이와 같은 변증법적인 사상이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음양사상이고 역(易)의 사상인데 서로 상대적이고 극단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이러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자꾸 갈등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좋은 더 나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주의라든가 개인주의라든가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혹은 보편주의라든가 특수주의라든가 하는 것을 상극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모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한 부분은 계층문제인데 이것은 특수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시켜서 보았을 때, 말하자면 종래에는 쭉 계속해서 여유가 있고 여전이 좋은 그러한 가족들은 이미 상봉을 했고 혹은 재결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의 경우는 계층적으로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는 소외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었고 동시에 이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재적응의 과정에서 역시 거기에는 계층적인 현상 때문에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회심리적 긴장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토론자로 나온 분께서는 역시 이 문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그러한 하나의 현상으로도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산후의 생활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리같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생존이나 혹은 자기보존에 힘겨운 그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수께서는 매스 미디어의 위력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로 그 뒤의 두 가지 주제에서 칠자하게 짚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약에서는 그 문제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3주제 제 4주제에 관한 보고를 본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경동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 5주제에 관한 것을 사회를 맡아주셨던 정철수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수님은 멀리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정 철수

제 5분과 주제는 「방송캠페인의 사회적 효과」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하신 분은 서울대학교의 신문학과에 계시는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우선 주제발표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상희교수께서는 우선 이번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방송시간은 얼마,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 인원 및 상봉가족수가 얼마, 이런 것을 전부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송시간은 138일이고 방송총출연인이 50,0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상봉가족수가 1만 가족이 넘고, 대충 이러한 방송사상 일찌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증유의 그러한 효과를 올렸다. 그래서 미국의 『성조지 (Stars and Stripes)』라는 잡지에서 우리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하나의 텔리톤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내었듯이—텔리톤이라고 하는 것은 Marathon 방송인데—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을 한 것은 세계방송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Marathon 방송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전대미문의 그러한 커다란 효과를 어떠한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느냐? 이것은 우선 첫째 인간적인 면에서 이 운동이 허머니즘에 입각한 것으로 자기 핏줄기를 찾고자 하는 절실한 인간애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족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산된 가족의 재결합을 바라는 그러한 가족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단 이것은 가족찾기운동에 그치지 않고 소위 우리 민족이산이라는 것에 대한 재인식을 다시 활력을 주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면에

서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어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은 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효과를 올렸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이겠느냐? 그 요인분석에 앞서서, 이교수께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역기능, 그러한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예로서 1940년에 H. Cantril이라는 사람이 쓴 『화성으로 부터의 침입』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를 들면서—그 내용은 화성인이 지구를 침입하는 그러한 전쟁—가공적인 하나의 상황을 중개하는 그러한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에서 한 일이 있는데, 그 라디오를 청취한 600만명 가운데 100만명이 그것을 사실보도인줄 알고서 당황을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간다, 피난을 간다, 이런 야단이 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방송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역기능을 초래한 예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반면 오히려 방송이 사회적으로 아주 유효한 긍정적인 기능으로서는 제2차대전 당시에 Kate Smith라는 방송 성우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국민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채를 많이 사달라는 이러한 방송을—그것도 Marathon 방송이라고 합니다마는—열 시간에 걸쳐서 한 결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효과를 올렸다. 그래서 모금운동의 큰 성과를 올렸다.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성과를 이번에 KBS 이산가족찾기 운동에서 더부로 느꼈는데, 그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된 주체인 매스 미디어측에서 10개 요인을 찾았는데, 우선 과거에도 이 산가족찾기 운동이 있었지만 과거보다도 이번에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효과를 올린 것은 역시 전국적으로 각 가구마다 평균 한 대를 가질 정도로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었고, 텔레비전 시청율이 높고 텔레비전 그 자체의 전파미디어가 활자미디어에 비해서 아주 속보성·동시성·생동성·현실성 또는 친근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발휘했다. 그 밖에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민족적인 요인을 들었읍니다마는 아무리 그러한 기술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

적인 어떠한 분위기, 사회적인 무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캠페인에 있어서는 사회적 민족적인 차원에 있어서 전국민이 바라던 것을 역시 시기 적절하게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매치가 되어서 성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효과를 올리는데 있어 선행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technology 가 발달을 해도 technology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이번의 캠페인은 시청자들의 사회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관심과 텔레비전의 기술적인 조건 등이 서로 부합이 되어서 그러한 커다란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토론은 주제 발표에 동조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오락성에만 치중되거나 너무 상업주의적인 선정주의(sensationalism)에 편중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한 선입관이 불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사회에 아주 유효한 좋은 효과, 좋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전파미디어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캠페인운동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가 대중 속에 침투가 되어서 대중의 관심을 불려일으키고, 대중은 또한 이 운동에 호흡을 같이 해서 호응이 잘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대체로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면 그 사회의 상당히 지위가 높거나 어떠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만 상영되기 쉬운데 이번에는 소외된 계층이 텔레비전의 화면에 방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렸다고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캠페인의 시청자들의 수용태도 또는 시청자들의 호응 등에 관해 캠페인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KBS의 보도국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실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조언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어서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더욱 더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들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성공적인 캠페인을 보다 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개한 캠페인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번 경험을 통한 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후, 다음에 전개되는 캠페인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체로 「방송캠페인의 사회적 효과」가 제5분과의 주제였는데 이것을 평가를 하여 점수로 매기자면 어느 정도 되었겠느냐 하면 A학점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고 총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방송사상 유례없이 그러한 큰 효과를 올린 이 캠페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좋은 경험으로 살려서 보다 차원을 높여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족통일에 KBS뿐만 아니라 여러 매스 미디어가 긍정적인 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민족통일의 촉진제가 되기를 염원을 하면서 제5분과의 막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제5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6주제에 대한 보고를 한양대학교의 팽원순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팽 원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주제는 「이 산가족찾기운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방송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연히 이 분과토의에서는 주로 이 산가족찾기운동과 공영방송의 역할 이런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발표하신 분은 서울대학교의 신문학과의 추광영교수님이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산가족찾기 생방송을 「커뮤니케이트 할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신 것이 대단히 특이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트 할 권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알 권리라든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처음으로 장 다르시(D'Arcy)라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아직 권리라는 개념으로서 정착이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커뮤니케이트 할 권리」라

는 것의 특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매스 미디어가 송신자이고 일반국민 대중은 수신자이다. 따라서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말하자면 일방통행적인 관계라고 종래에는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라는 것은 특히 수신자인 대중의 입장을 더 강조해서 대중이 커뮤니케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또 쌍방적인 관계를 맺는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라는 개념으로서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착안이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의 주체는 국민인데, 요즘 와서는 오히려 매스 미디어가 국민을 소외하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주체이었던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다 하는 점에서는 ‘The Right to Communicate’라는 것이 그 나름대로 대단히 민주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행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은 물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읍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커뮤니케이트할 권리를 극적으로 실현시켜 준 이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표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표자께서도 그렇고 여러 토론자께서도 특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산가족찾기운동 하나 가지고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께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방송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았는데 이산가족찾기운동이 있은 뒤에도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혼점을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토론자 중에서 조천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나오셨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KBS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적십자는 이산가족찾기를 고유의 업무로 하면서 벌써 6·25 사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그동안에 전개해

왔고 그 동안에 방송매체도 이용할 만큼 충분히 이용했다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다만 그동안에 만족할 만한 협력관계는 이루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하셨습니다. 토론자들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전하지 못하겠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수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앞으로는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정말 참된 의미의 공영방송이 될 수 있는 교훈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여섯 개 주제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산가족찾기운동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한낱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마는 이 작은 사건 자체에 민족의 비극이 깃들여 있고 또한 염원이 깃들여 있고 또한 역사가 아울러 깃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어느 한 측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러 학자들, 언론계에 계신 분들, 또 이 문제를 둘러싼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룩된 보고를 기초로 하여 이 자리에 새로 참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계에 계시면서 그동안에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꾸준히 지켜보아 주셨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호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 성호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민족이 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족이 산의 염원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KBS의 이 산가족찾기 캠페인은 국민의 의사소통의 권리를 비로소 공영방송으로서 실천해 주었다는 것 그런 점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벌어진 이 산가족찾기 캠페인 방송을 듣고 또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방송운영을 보고 또 이번 심포지움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보다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앞으로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의 방송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

셨듯이 캠페인이고 이벤트였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단기성을 띤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단회성을 띤 것이었습니다. 비록 넉달 동안에 걸쳐서 진행은 되었으니다마는 그러한 종류의 방송, 그러한 종류의 상봉이 1년 내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희교수께서 예쁜 성우의 목소리로 국채팔기 캠페인 라디오방송을 10여시간 계속해서 상당한 양을 팔았다는 미국의 예를 들었으니다마는 그것이 하루에 진행되었기에 망정이지 1년 내내 진행되있더라면 아마 라디오를 접어 던졌을 것입니다. TV에서도 이런 종류의 방송이 넉달 동안에 원활하게 스스스하게 끝났기에 망정이지 1년 12달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민족을 제결합시켜 준다는 성스러운 이 운동이 나중에는 지긋지긋한 운동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TV의 역할은, KBS의 역할은 이 산가족 찾아주자는 운동의 기폭제로서 꿩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보다 항구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그 불길이 오른 이 산가족 찾기운동이 우리 쪽에서나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이 산가족의 자료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적십자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캠페인 방송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명단을 통해서 상봉을 하느냐 하는 홍보 방송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KBS는 의당 그러한 역할을 했으니만큼 마무리를 잘 해 주는 의미에서 나머지 등록을 하고도 방송을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 방송을 계속해야 할 줄 압니다.

언필칭 남한쪽에만 이 산가족이 500만명이라고 하는데 찾은 수가 겨우 얼마 입니까? 일만 천 건이지요. 그것의 10분의 1도 안되지요. 그것 가지고 운동을 끝내기도 어려운 일이고 하니까 계속 항구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북한이 거부하는 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운동을 벌이건 결국 반쪽 성과밖에 못 거둔다 이것입니다. 아까 제 3주제에서 북한은 이 산가족 찾기 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성을 배제한 이 산가족 문제로 북한과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성의를 보이는 데도 그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그쪽은 이 산가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런 북한의 완강한 거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런 거부를 철회할 리가 없고 따

라서 이 산가족찾기운동에 호응할 하등의 조짐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계속 우리쪽으로서의 운동으로 이어져야 될 운명이고 그 결과는 반쪽 정도의 효과 밖에 못 거둔다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과연 북한 측의 거부가 계속된다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그쳐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 2 주제에서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족복귀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김세원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면 이스라엘사람들이 시오니즘운동으로 나라를 결국 찾았읍니다. 민족이 다시 모였는데 민족이 모인게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운동이 기독교 문명국가의 내면적인 공감을 받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이제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는 것을 국제적으로 납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산가족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도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PLO의 가족들의 경우 PLO 전사들의 가족은 서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전사들은 전사들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헤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동서독이 이 산가족문제를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이 산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단 이 산가족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산재한 아주 공동적인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읍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그만큼 불안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 일보 직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2 주제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인식을 촉구하는 방안으로 UN 기구를 이용해보자 하는 말이 나왔는데 UN 제 3 위원회가 국제난민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성과가 어떤지는 몰라도 일부에서 이런 운동을 벌인 이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벌이므로써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 산가족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마는 가

족이 흩어졌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경우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본다면 혹시나 북한쪽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호응을 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심포지움이 민족이 산에 대한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족의 재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김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이산가족찾기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폭제적인 구실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장으로 계신 서극성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 극성

통일원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BS가 주도했던 이산가족찾기운동은 통일원 입장에서, 민족통일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좋은 계기와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남북한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KBS 방송이 시청자와 방송자가 서로 공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민이 다 참여하는 방송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이것이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TV, 라디오 할 것 없이 전부 공산당이 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네들이 매스컴 자체를 당의 선전자, 교양자, 조직자로 규정할 뿐 아니라 당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해 주고 교양해 주는 일방통행의 매스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하므로 해서 역시 국민과 방송이 모두 심적으로 일치가 되고 이러한 것이 북쪽까지 넘쳐 흘러서 북한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매스컴으로 발전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매스컴 체제가 우리의 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제시가 되었듯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매스컴이 차단된 이런 설정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이 산가족찾기운동의 내용상 나타난 문제입니다마는 38년, 40년만에 이 산가족이 재회를 하므로 해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참상, 또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정착시키느냐 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전쟁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민족통일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민간차원에서 추진했던 이 산가족찾기운동의 좋은 결과는, 이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까 토론자나 발표자께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민족이 산이라는 과제로서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족의 통일이라는 차원으로 승화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느낍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민족통일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정치적인 단합만으로 이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재된 생활양식이나 습속이나 우리 민족들의 전통이 오히려 동질성을 되찾은 바탕 위에서, 즉 진실한 민족통일 바탕 위에서 국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일진데, 이번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북한측과 더불어서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감도 느낍니다. 물론 저희 통일정책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읍니다마는 20개 시범사업이라는, 가장 남북한 간에 하기 쉽고 정치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기능주의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인도적인 문제, 이 산가족재결합문제가 이루어지면 통일이 촉진되는 데, 또 내제적인 순수한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정치통합하는 데도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20개 시범사업 중에 남북간에 우편교류 또 이 산가족의 재회 상봉 이것이 하루빨리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하고 입장은 다르고 상황은 틀립니다마는, 이 지역상에는 분단국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 분단과 유사점이 많은 동서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독에서도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통일원 같은 내독관계성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도 통일문제

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겠습니다. 명칭부터 우리는 통일원입니다마는 거기는 통일원이라기 보다는 내독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는 이러한 내독관계성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독관계성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류하고 접촉하고 협력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실무적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동서독의 이산가족문제 처리는 비교적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처리 문제와 더불어서 보다 발전된 협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부럽다고 보겠습니다. 77년에 298만이라는 서독인이 동독 방문을 했고 78년에 317만 7천회라는 방문전수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역시 174만 건이라는 방문전수가 있으므로 해서 동서독은 사실상 구라파를 분단하고 있고 그 구라파의 분단이 동서독분단으로 연결되고 있읍니다마는, 동서독 자체는 내부적인 통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동서독은 기능주의적인 통일, 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남북관계는 아직도 서신조차 보낼 수 없는, 방송조차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산가족이 전무하다는 북한의 당국자들의 평가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큰 문제, 민족통일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대만의 경우는 이산가족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는 중국 본토에서 거주했던 또 집권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만에 그대로 이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대만 원주민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를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이산가족 분단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산가족문제는 거의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통일정책의 기본입장이나 방향이나 또 분단국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볼 때도, 지난번 KBS에서 한 이산가족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민족의 이산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로 향하는 하나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산가족찾기운동이 끝난 뒤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보는 이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구성이나 준비도 역시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협시점에서 가장 적절히 개최한 것으로 더욱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KBS의 사업이 보다 민족통일로 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다 더 연구되고, 기획되고, 관리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매스컴이 동원되고 하는 것도 민족통일과 결부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토통일원의 서극성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시는 정경희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경희

저는 어제 오늘 심포지움에 참여하면서 조금 섭섭한 것이 있읍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 KBS 이 산가족찾기운동에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국일보가 먼저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안 해 주시는 그것이 섭섭합니다. 한국일보는 61년도에 10만 어린이 부모찾아주기 운동을 했읍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약 100회에 걸쳐서 이 산가족찾기운동을 했읍니다. 그때 지면제작에 저 자신이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도 약 3만명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리하다 못해, 「만난 기쁨」으로 처리를 했읍니다.

신문을 제작하다 보니까 매일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나 가지고서 통곡을 했다든가 껴안았다든가 그리고 보니까 독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끝내 버렸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V에서 방영이 되자마자 참 선풍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틀 동안의 토의과정에서 다 들으셨읍니다. TV라는 매체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 뒤늦게 나마 기술적인 여건이 여러가지로 많이 성숙했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읍니다. 다 옳은 말씀이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 테마에서 공영방송이

라는 것이 뭐냐 또는 커뮤니케이트할 권리가 뭐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일보가 10만 어린이 부모찾아주기운동을 할 때나 또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할 때의 활자매체 보급보다도 지금 텔레비전의 기술과, 보급도가 훨씬 앞지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다란 위력을 지닌 매체를 이대로 놔둘 것이냐? KBS가 이번에 훌륭한 일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도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텔레비전에 대한 소비자운동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최선생님께서도 인급하셨읍니다마는 KBS는 불만처리시스템이라든가, 모니터 시스템, 그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러한 자체의 행정적인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운동입니다. 이것이 외국에는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이 거의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은 역시 소비자운동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느낀 것은 그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행정서비스의 눈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또 정치가 미치지 못한 후미진 구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소비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어떤 길이 열리므로써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읍니다.

그런데 이번 심포지움의 테마를 보면 「현실과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마는 과제라는 앵글에서 제가 이를 동안 방청을 한 결과 몇 가지 감명을 받은 그런 테마를 꿀라 본다면, 첫째 이산가족찾기운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재적응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매스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어제 있었던 민족복권운동이라는 상당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상당히 흥미스러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마는 그 중에서 유태형의 민족복권운동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국제질서 세계평화라는 보다 큰 테두리에서 볼 때 유태형의 민족복권운동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은 세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산가족운동을 논하는 데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산가족찾기운동에 참여한 실향민들만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왜 실향민도 아니면서 이산가족도 아니면서 그 프로에 눈물을 흘린 대부분의 오디언스의 문제입니다. 이 오디언스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들이 이 산가족을 만나 가지고 펠펠 뛰고 만세를 부르는 그 심정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3년전, 또 그보다도 더 앞서는 세월에 자기가 받은 정신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우리는 흔히 한이라고 합니다—그 한은 반드시 치유, 보상을 요구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나 보상이 없이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났다고 해서 보상되거나, 치유되었다고 해서 이 산가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화지체현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문화지체현상을 바로 실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족분단문제는 윤리적으로 꼭 해야 된다, 도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가족문제 만큼은 개인적으로 절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민족적인 한, 이것도 역시 이산가족찾기처럼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어 어떠한 채널이 주어질 때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생각할 때보다 더 큰 분단의 문제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정경희선생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면 이어서 전에 남북대화를 직접 지휘하셨던 정홍진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홍진

저는 이 산가족을 찾는 문제나 또 남북대화라고 하는 현장에서만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현장에 쫓아다닌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열린 심포지움에 대해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너무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만 꼬집고, 좋은 것을 빼놓아,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읍니다마는, 좋은 얘기들은 전부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절제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의 입장에서 보니 학문적으로 잘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뛰어다닌 사람으로서 한가지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족이 산하고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산가족이라고 할 경우 인도적인 문제로서 국내에 있는 이산된 가족들을 찾아 줄 수 있지만, 민족이 산 해 가지고 남북간에 이산된 가족찾기하면 꽤 정치적인 문제고 민족통합의 문제가 되어서, 남북간에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인도적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북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한에 월남가족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 30수년을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월남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다가는 자기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찾아가 만나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이 갈 것이냐? 이것이 인도적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은 냉정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데 그 중간쯤 되는 것이 조총련의 제일동포의 모국방문입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는 대립되고 있지마는 지역적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제일동포가 모국방문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앞으로 남북간이 이산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할 때 문제점으로 사전 충분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모국방문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총련 변두리 지역에서 유대가 강하지 않는 사람부터 오기 시작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점차 핵심적인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적 기반이 조총련사회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컨

데 불고기집을 하나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국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 집에 한 사람도 손님이 안 간다, 이런 문제, 신용조합에서 돈을 빌려 놓았는데 모국방문을 했더니 내일와서 당장 돈을 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기 자식을 북송을 했기 때문에 이북에 간 자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스터디하는 데 예비적인 테마로서 꽤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책당국자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조금 ‘만만디’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마는, 우리 가정을 예를 들면 아버지는 자식이 맨날 걱정이지요. 자식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일을 당하지 않느냐 걱정인데, 실제 자식은 아버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처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과 책임이 없는 사람과는 북한을 보는 것이나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나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걱정하는 것도 곤란하고 아버지의 걱정을 너무 몰라주는 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중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 산가족을 찾는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통일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대화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간층에 생각이 되는 사람이, 가정으로 얘기하면, 대학 다니는 형님 정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남북간의 대화문제나 반공 문제를, 또 이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나 이러한 방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북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 3주제에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커다란 공로를 이루었다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가지 그 공로에서만 주저 앉아서는 안되겠다. 그분들이 반공, 북한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크지마는 이제는 탈피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그분들에게는 자기들이 월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복수심 같은 것이 있다. 좀 이제는 드라이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북한의

가족문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적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 북한사회를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네들의 발표와 말만 갖고 연구해서는 안되겠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란 어떠한 것이냐, 어떤 사실 위에서 그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북한을 좀 더 정확히 사실대로 연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어렵게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냐? 물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가지 요인 위에 서 있습니다. 동양의 가부장제하고, 저들이 일본의 쇠민지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권위주의 거기서 배운 것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마르크스 레닌을 빌려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북한판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동구권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츤지에서 북한의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좀 사실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공개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먼저 북한이 연구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회담을 할 때 제일 곤란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남북대결이니까 가서 대화를 하면 꼭 이기고 오라는 통에 곤란합니다. 완전히 이기고 오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뭔가 생산을 하는 것이 대화인데 완전히 이기고 오면, 권투에서 1 라운드에서 KO승을 거두어 버리면 2 라운드부터는 없어집니다. 이것이 15 라운드를 하게 되어 있으면 가서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15 라운드까지 가서 판정승하는 것이 대화하는 사람의 생각인데 웬사람이나 옆의 사람들은 가서 한 방에 바로 KO시키고 오라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들중 대화 훈련이 안 된 북한에 대해 연구가 없는 분들은 금방 싸우려고 그립니다. 왜냐하면 저쪽의 말과 우리의 말에 그동안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위낙 크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가 하도 열을 내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대표님! 대표님! 저 사람들을 녹음기로 보십시오. 녹음기보고 화내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회담을 하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주제 얘기

를 하는데 저기 계신 추박사님이 지금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담때 한 담을 평양가서 배워와 가지고 그대로 써 가지고 온 것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지난번 회담의 답을 마구 내리 읽어대니 화가 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사람들을 잘 모르면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을 아주 드라이하게 알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표님보고 “제발 녹음기로 보고 화내는 사람 보았느냐, 이 사람 오늘 우리 얘기한 것을 녹음해 가지고 평양가서 그 답을 준비하니까 대답은 그 다음 회에 와서 들으면 되고 녹음기보고는 화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제 얘기였습니다.

이런 것이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간접적인 대결로만 할 것 아니라, 즉 이산가족이 없다는 말만 꼬집을 것이 아니라, 왜 이산가족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느냐고 하는 사정이 학계에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KBS 방송에 있어서도 이산가족을 찾는다고 하는 인도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위낙 좋다 보니까 다른 정책적 목적이 조금 노골적으로 나와 가지고 오히려 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 분야를 너무 수용하다 보면 간접적으로만 표현을 했더라도 좋았을텐데 그 분야를 너무 노골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이산가족을 찾자, 그러면서 30수 년 전의 복수심을 길러서 어찌겠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양가족이 합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옛날의 복수심을 자식이 잊어버리게 해 주는 것이, 두 집안이 화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아버지의 걱정과 자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 단결을 위해서 저쪽에 대한 복수심을 불어 넣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방법말고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하자, 통합을 하자 할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는 복수심을 잊어야지요.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화합을 하자고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더 북한을 잘 알고 단결하여서 어디까지나 형님의 입장에서 저쪽과 화합해 가는 길을 좀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모색하지 않

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앞으로 또다시 남북대화가 트여진다든지 할 때 우리의 교육은 감정적 반공교육이기 때문에 우리쪽이 잘못하면 자기에 말려가지고 대화하는 전략에 제약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아직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쪽이 무엇을 제안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71년 남북대화를 할 때는 그동안 해 놓은 반공교육때문에 우리들이 무척 제약을 받았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나 또는 공영방송에 있어서 그러한 점이 조그만 고려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남북대화 대표로서 남북대화를 추진해 오신 바 있었던 정홍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선생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학계에서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쭉 주제해 오신 KBS 보도본부 부부장 이청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청수

저는 보도본부 부부장이라는 입장에서 이산가족방송의 보도실무부분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거의 전부를 저의 전임자가 하다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맡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이산가족찾기방송에 대한 방침이나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대표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의 이산가족찾기방송에 대한 계획과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KBS 이산가족 찾기방송은 아주 잘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다음에는 이번 이산가족 찾기방송이 남북간의 이산가족찾기방송이 아니고 남한 안에 있는 이산가족 찾기방송에 그치고, 물론 일부 해외 동포들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범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남북한 통일을 염원하는 기폭제는 되었지마는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서 남북이산가족찾기로 발전이 되어 나

가야겠다는 것이 그 두번째가 되겠고, 이번 KBS 방송을 통해서 공영방송,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했다, 앞으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대체로 저희 방송의 입장에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뿐이 아니고 과거에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각 언론이나 방송국에서는, 텔레비전이 정말 바보상자인 줄로만 알아왔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이 우리한테 상당히 유익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이산가족찾기방송 이전에 KBS 방송은 역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보상자 역할에 그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분과토의에서의 일부 학생들의 질문도 제가 들었고, 20년전 저희 은사님도 참석하고 계셔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좋고 나쁜 상품, 모든 상품을 시장에 전부 다 나오게 해서 경쟁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일 좋고 값싼 상품만 살아 남는다. 그러니까 자유경쟁을 시켜 놓으면 결국은 최선의 상품과 값싼 상품만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자유경쟁 시켜두면 된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에 변화가 오지요. 그냥 자유시장 경쟁에 말려두니까 부작용이 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 극단으로 몰지요.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 또 한편 우리 자유진영에서도 수정자본주의 경제이론도 나오고 있으나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이론이 일단 옳다는 주장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금 발전 유지되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수정을 해 왔읍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 가지고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한 최선의 상품과 값싼 상품이 살아 남기까지는 온갖 시행착오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잘못 만들어서 망한 사람도 있고 또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약은 그 다음에 사먹지를 않겠지요. 그 상품은 도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 시행착오가 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언론의 자유시장이론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까 모든 생각, 좋고 나쁜 생각 이것을 전부 다 시장에 내놓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면 좋은 생각과 질좋은 내용 있는 이런 사상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경쟁에 내버려두어라, 이것이 사상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는 좋은 생각과 좋은 내용이 살아 남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거나 또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 남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사전에 제거하자, 이게 현대언론이고 또는 자본주의 경제이론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KBS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말하게 하고 그것을 다 보도하게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결국 좋은 것을 채택하게 하고 그것을 또 방송이 다시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들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방송하지 않는다는가 어떤 것은 더 강조를 한다든가 하느냐 하는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에서 일일이 계산지에 계산을 하지 않고서도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정답이 나오듯이 그런 과정을 생략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또 남북으로 대치해 있으니까 모두가 긴 시간에 토론판정을 거쳐서 어떤 정답을 얻어내기까지의 시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과정을 거쳐서 즉각적인 답변이 나오듯이 우리 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느냐? 다만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익이나 우리 사회의 이익,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있겠지마는 이것은 컴퓨터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 다른 선진국의 역사적인 경험, 각계 인사들의 의견, 이런 것이 사전 종합이 되어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방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산가족찾기방송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른 분야의 공공성 공영성을 강조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답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이산가족찾기방송의 계속성, 후속성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10년 내내 이산가족찾기방송만 하고 있으면 아마

TV를 내던지고 말 것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의 방송으로서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죽하다 해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후속조치를 여러 가지로 취했는데 아마 그것은 잘 모르셔서 혹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컴퓨터 정밀자료에 의한 본격적인 검색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넣기만 하면 다 나오도록 하고 있고, 또 명부열람을 계속하고 라디오에 의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은 시간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만남의 광장에서도 이산가족찾기를 계속 알선을 해주어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하루 평균 세 가족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녹화장면을 연결하는 비디오파일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까지의 이산가족찾기 기구를 축소는 했읍니다마는 계속 존속을 시키고 있고, 또 이미 만난 이산가족에 대한 사후적인 지원 조치 이것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KBS 쪽의 얘기를 드리게 되니까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북이 산가족찾기 이 자체가 통일의 염원을 이루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 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산가족만 해도 1천 만이 넘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만큼 이상의 이산가족이 나오는 사태나 전쟁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25와 같은 새로운 전쟁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인권의 가장 기본문제인 이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6·25 같은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우도록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방송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산가족끼리 재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상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번에 KBS이 산가족 방영을 통한 결합이 별씨 정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나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나의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물며 남북한 이산가족끼리 만난 경우 아마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내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보다도 더 먼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이산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에는 이산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1984년이 곧 옵니다마는 다 아실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말을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 이것은 살려두고 「언해피」, 이것은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만 알지 불행을 모른다. 이렇게 되지요. 불행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불행을 느끼는지 안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에 알맞는 신조어를 다시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미 이산이라는 말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고 또 호적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가족관념이라는 것은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조건 만난다고 결합이 아니다 이거지요. 만나도 진짜 이산가족으로 서로 느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방송은 이런 정신적인 공감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뿐 아니고 모든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전세계에다가 계속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전의 남북 TV 방송, 이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NTSC 방식이고 북한은 PAL 방식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그대로 북한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장치를 하면 KBS하고 평양방송국하고 TV를 놓고 우리가 이번에 KBS에서 한 것처럼 남북한이 산가족방송을 동시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면 양쪽 스튜디오에서 얼굴을 보게 하는 이런 방송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는 남북한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일 초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KBS에서도 이것을 공식제의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관한 것은 표명을 한 적

이 많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좋은 착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북한 이산가족찾기에 우리 방송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즉 이 운동에 북한이 호응을 해 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자신이 스스로 고립되고 열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하나의 한국에 대한, 바둑의 패처럼 패로서 응해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만 한다면 이런 초보적인 교류에는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고 보고, 그때는 우리 KBS가 또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이것은 KBS 기능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남북이 산가족찾기하고 직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 질문이나 토론과정에서 가끔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국가발전과 정치발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발전은 국력자체의 발전, 정치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정치발전은 하나도 없이도 국가발전은 상당수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련같은 것을 보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국가발전 수준은 미국하고 격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이 일치하는 미국의 경우는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불행히도 민주주의는 부재하면서도 국가발전은 초강대국에 위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다른 나라들도 또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치발전은 없지만,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뒤집니다만 군사력 부문은 상당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발전에 만연연하고 있을 때 국가발전의 일부인 무력, 이것을 상당수준으로 끌어올린 북괴가 먼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일단 덮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민주주의로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도 단합이 되고 단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난침을 해 올 경우 막심한 피해를 입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방송, KBS가 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침략을 당하면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이겼기 때문에 역시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이런 환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한테 이겼지요. 그러나 일단은 먼저 당했읍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 그때야 정신차려서 단합해 가지고 이겨도, 그때까지의 막대한 피해, 이것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산가족도 그래서 나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이나 언론의 프리 마켓 이론이나, 이것이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산가족이 나오고 가족이 죽고 재산이 유실되고 이런 국력의 낭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민족이 인류역사에 한 5,000년 이상 버텨 왔는데 앞으로 더 잘 버텨 나가고 더 발전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아주 허약하기 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우선 토론을 생략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내보내려 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키우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KBS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청자나 여러분들께서 좀더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의 방송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BS 보도본부 부부장 이청수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열 시간에 걸쳐서 주제 및 토의가 있었고 또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도 시작한지 벌써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장 12시간이 넘는 이러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종합토론을 마치는 계재에 있어서 사회를 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거두절미하고, 이 산가족찾기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서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이 다같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테

있어서 그 동안 KBS의 업적을 다 칭찬을 해 주었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모든 트론자나 참가자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이산가족 : 현실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동안에 현실을 분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계기로 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홀했다는 점이고 이것이 여러 논자에게 있어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본질로 보아서 문제를 지적해 내고 또 파헤쳐 낸다고 하는 것은 학문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상기해 보았을 때, 어제 오늘에 걸쳐 많이 지적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사회과학적인 제 문제를 파헤치고 또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포지움을 주제해 주신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경동박사에게 인사 바톤을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김 경동

오랜 시간동안 종합토론을 주제해 주신 김영국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일일히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어제 아침부터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발표와 사회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연일 차가운데 이렇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질문도 해 주신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이 모임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 동안에 민족이 산의 문제, 민족분단의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피부로는 느껴 왔지만, 한번도 정치적으로, 또한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거나 혹은 접근을 해 본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의 반성에서부터 앞으로는 본격적인 연구에着手해 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미쳤기 때문에 우선 그와 같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 제

기라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이 모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참가해 주시고 뒤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개인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